

2024
고2 문학
신사고

고2 문학 신사고 | 1(2)(3) 북어 대가리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직전 보강



선생님! <북어 대가리>에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북어 대가리>에는 인물의 특징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단다. 일단 자양과 기임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운전수는 작품에서 왜 자양과 갈등이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한단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북어 대가리>는 어떤 작품인가요?

북어 대가리는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을 통해 개별화되고 획일화된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희곡이란다.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읽어야 하나요?

일단 인물들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지. 자양과 기임은 부속품이 담긴 상자를 창고에 쌓았다가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일만 반복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그들은 주체성을 상실한 채 단순한 노동력만 제공하며 기계적인 삶을 살아간단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단다.



물론 자양은 기임이 떠나고 혼자 남은 창고에서 북어 대가리를 보며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회의하는데, 하지만 자양은 결국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지.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북어 대가리>에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북어 대가리>에는 인물의 _____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자양과 기임의 _____이 무엇이고, _____는 작품에서 왜 자양과 _____이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북어 대가리>는 어떤 작품인가요?

북어 대가리는 _____인 _____과 _____을 통해 _____되고 _____된 _____를 살아가는 _____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_____가 안고 있는 _____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_____이란다.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읽어야 하나요?

일단 _____들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지. _____과 _____은 _____이 담긴 상자를 창고에 쌓았다가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일만 _____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그들은 _____을 _____한 채 _____만 제공하며 _____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은 _____을 상실하고 _____된 삶을 살아가는 _____을 _____적으로 드러낸다.



2024
고2 문학
신사고

고2 문학 신사고 | 1(2)(3) 복어 대가리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이 하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인물의 대조적인 성격이 드러남.)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상자를 바꾸어 싣은 이유)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르하다고 인정하는) 편지(상자가 뒤바뀌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창고지기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를 쓴다.]([[: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자양은 편지를 상자 주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하강] 창고(등장인물들이 일하는 삶의 공간,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와 단절된 공간 → 산업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단절된 공간으로 산업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의미함.)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말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다툼)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자양과 트럭 운전수의 외적 갈등)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사건을 덮으려는 운전수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행동 지시문) 제발 보내야 해요!(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양의 정직한 성격,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자양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산업 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 운전수의 삶의 방식, 파편화된 노동의 기계적 반복을 의미하며 부품과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의 특징을 드러냄.)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운전수가 알고 있는 것이 없음.)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불인 별명인데(인물의 진짜 이름을 모른 채 별명으로만 부름 → 현대 사회의 익명성, 피상적 인간관계가 나타남. / 익명성을 통해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줌.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운전수'나 '딸기코'와 같이 등장인물을 직업이나 별명으로 명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음. 별명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 피상적 인간관계가 나타남.)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산업 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 / 현대 사회의 단절된 인간관계가 나타남.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접수반장과 분배반장이 같은 정거장에서 일하면서도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현실은 단절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자양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이 드러남.)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자양이 생각하는 방법)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어떠한 기구나 기계 따위에 달려 붙어 있는 물건)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뉘지거든.] ([[: 편지가 상자 주인에게 편지가 도착할 수가 없다는 의미, 편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둘의 생각 차이를 드러냄.)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개인이 사회의 부속품처럼 살아감. 현대 사회의 일의 과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나타남. 일의 전반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환경임.) 구절에 기호를 붙여서 그 의미를 묻는 문제에 개인이 전체가 아닌 부분만을 담당하는 분업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편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이유)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유익한 물건,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기계로 여기고 있음.)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유해한 물건)] ([[: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 채 부품처럼 살아감.)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음. 창고 밖이 부조리하다면 창고 안에서의 성실함이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 창고 속의 자네 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자양에게 판단과 행위의 기준,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 줌.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자양은 서류를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등장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는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깊이 알기 분석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정성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

플라스틱 물건처럼(직유법, 가볍고 가치 없는 존재) 느껴질 때

[나(시적 화자)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획일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현대 아파트(산업화, 도시화의 산물)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탈보네 대장간(아파트에 밀려 사라진 옛것으로 화자가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무쇠를 불로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무가치한 삶을 가치 있게 단련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

시퍼런 무쇠낫(가치 있는 존재)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근심을 푸는 곳)

아늑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가볍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해당 작품을 <보기>로 제시하여 <북어 대가리>와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을 <보기>로 제시하여 <북어 대가리>와 비교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의 무가치한 존재인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를 <북어 대가리>의 '북어 대가리'와 연결하여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4
고2 문학
신사고

고2 문학 신사고 | 1(2)(3) 복어 대가리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_____인 자양과 기임이 하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인물의 _____적인 성격이 드러남.)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_____를 바꾸어 실은 _____)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어떤 내용이나 _____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편지(_____가 뒤바뀌었음을 _____하게 고백하고, _____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를 쓴다.]([[: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자양은 _____를 상자 주인에게 _____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_____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자,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_____들이 일하는 _____의 공간,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와 _____된 공간 → _____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_____으로 산업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의미함.)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자 사이에 언쟁(말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다툼)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자양과 트럭 운전수의 외적 갈등)

운전자: 그건 미친 짓이야!(잘못을 _____하는 _____를 보내는 것,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사건을 덮으려는 운전수는 자신이 맡은 일에 _____이 부족하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_____) 제발 보내야 해요!(자신의 잘못을 _____하는 자양의 정직한 성격,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자양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_____을 갖고 _____을 다하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운전자: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산업 사회에서 _____처럼 살아가는 삶, _____의 삶의 방식, _____된 노동의 _____을 의미하며 _____과 같은 삶을 사는 _____의 특징을 드러냄.)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운전수가 알고 있는 것이 없음.)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인물의 진짜 이름을 모른 채 _____으로만 부름 → 현대 사회의 익명성, _____가 나타남. / _____을 통해 소통이 _____된 _____을 보여줌.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_____’나 ‘_____’와 같이 등장인물을 _____이나 _____으로 명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그들에 대한 관심

이 없음. 별명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_____, _____가 나타남.)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산업 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제대로 _____를 맺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 / 현대 사회의 _____가 나타남. **해당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_____과 _____이 같은 정거장에서 일하면서도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현실은 _____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자양의 _____하고 _____한 성격이 드러남.)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자양이 _____하는 방법)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_____ 기구나 기계 따위에 달려 붙어 있는 물건)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뉘지거든.] ([[: 편지가 _____에게 편지가 _____할 수가 없다는 의미, 편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둘의 _____를 드러냄.)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자신에게 _____만 수행하기 때문에(_____이 사회의 _____처럼 살아감. 현대 사회의 일의 과정의 _____과 _____이 나타남. 일의 전반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환경임.) **구절에 기호를 붙여서 그 의미를 묻는 문제에 개인이 전체가 아닌 _____만을 담당하는 _____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편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_____)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_____, 사람들을 즐겁고 _____로 여기고 있음.)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_____한 물건)] ([[: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 채 _____처럼 살아감.)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_____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음. 창고 밖이 부조리하다면 창고 안에서의 _____이 오히려 세상의 _____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_____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자양에게 판단과 행위의 기준,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_____을 보여 줌. _____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자양은 _____를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_____에 대해 묻는 문제는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의 인물들의 특징과 성격을 꼼꼼히 분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____를 ____하는 자양의 모습, '서류'에 대한 둘의 생

깊이 알기 확인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____과 ____을 들이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____만을 추구하는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____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

플라스틱 물건처럼(____법, ____고 ____없는 존재) 느껴질 때

[나(시적 화자)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____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____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현대 아파트(산업화, ____의 산물)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아파트에 밀려 사라진 ____으로 화자가 ____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____를 불로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____)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____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____으로 쓰는 쇠덩이)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____한 삶을 가치 있게 ____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

시퍼런 무쇠놋(____있는 존재)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____을 푸는 곳)

아늑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____고 ____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____있는 삶에 대한 소망)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해당 작품을 <보기>로 제시하여 <북어 대가리>와 ____으로 문제 삼고 있는 ____의 모습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을 <보기>로 제시하여 <북어 대가리>와 비교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의 _____인 '_____', '_____'를 <북어 대가리>의 '북어 대가리'와 연결하여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4
고2 문학
신사고

고2 문학 신사고 | 1(2)(3) 복어 대가리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복어 대가리

1. 제재 개관

갈래	[희곡], [현대극], [단막극]
성격	[상징적], [비판적]
배경	[현대의 어느 창고] 안
주제	현대 사회에서 기계 [무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특징	- 서로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부각함. [창고], [상자], 복어 대가리 등의 상징적인 [배경]과 [소재]를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2. 인물의 명명법에 나타난 특징

자양, 기임	[성씨]만으로 이름들 대신함.
운전수	하는 [일]로 이름을 대신함.
딸기코, 외눈깔	[별명]으로 이름을 대신함.



[익명성]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 [개성]을 잃고 [무속품]처럼 살아가는 모습

3. 기계와 폭탄의 의미

기계	사람들을 [기쁘게] 함.
↓	
폭탄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임.

= 실제 사회의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함.

4. '복어 대가리'의 의미

몸뚱이를 상실함.	[실천력]과 [방향성]을 상실함.
머리만 남음.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참.



[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

5. 자양의 내적 갈등

말은 [옳]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으로, 창고 안의 삶에 [만족]함.



자신의 [신념]과 [태도]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회]의 [의]를 느낌.

=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분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

TEST 1단계

북어 대가리

1. 제재 개관

갈래	□곡, □□곡, □□곡
성격	상□, 비□□
배경	□대의 어느 □고 안
주제	현대 사회에서 기계 □품처럼 살아가는 현□□의 모습
특징	- 서로 상반된 □□관을 지닌 인물 간의 □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부각함. - 창□, 상□, 북어 대가리 등의 상징적인 배□과 소□를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2. 인물의 명명법에 나타난 특징

자양, 기임	성□만으로 이름들 대신함.
운전수	하는 □로 이름을 대신함.
딸기코, 외눈깔	별□으로 이름을 대신함.



익□□
- 소□이 단절된 현□□의 모습 - 개□을 잃고 부□□처럼 살아가는 모습

3. 기계와 폭탄의 의미

기계	사람들을 □□게 함.
----	-------------



폭탄	사람들을 □□번에 죽임.
----	---------------

= 실제 사회의 본□적 □습을 알지 못함.

4. '북어 대가리'의 의미

몸뚱이를 상실함.	□□력과 □□성을 상실함.
머리만 남음.	쓸쓸하고 허무한 □각으로 가득참.



□□성을 잃고 □□관의 □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

5. 자양의 내적 갈등

말은 □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옳다는 믿□으로, 창고 안의 삶에 만□함.



자신의 신□과 태□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회□를 느낌.

= 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분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인의 모습

TEST 2단계

복어 대가리

1. 제재 개관

갈래	흥 가, 흥 다 가, 다 모 가
성격	사 자 자, 바 표 자
배경	흥 다 의 어느 첫 가 안
주제	현대 사회에서 기계 바 표 처럼 살아가는 흥 다 오 의 모습
특징	- 서로 상반된 가 첫 가 을 지닌 인물 간의 가 다 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부각함. - 첫 가, 사 자, 복어 대가리 등의 상징적인 바 가 과 사 자 를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2. 인물의 명명법에 나타난 특징

자양, 기임	사 씨 만으로 이름들 대신함.
운전수	하는 오 로 이름을 대신함.
딸기코, 외눈깔	바 모 으로 이름을 대신함.

- 사 테 이 단절된 흥 다 오 의 모습 - 가 사 을 잃고 바 사 표 처럼 살아가는 모습

3. 기계와 폭탄의 의미

기계	사람들을 가 바 가 함.
----	---------------



폭탄	사람들을 흥 가 바 에 죽음.
----	------------------

= 실제 사회의 바 자 자 모 사 을 알지 못함.

4. '복어 대가리'의 의미

몸뚱이를 상실함.	사 첫 큰 과 바 흥 사 을 상실함.
머리만 남음.	쉴쉴하고 허무한 사 가 로 가득 참.



바 흥 사 을 잃고 가 첫 가 의 흥 큰 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

5. 자양의 내적 갈등

말은 오 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옳다는 모 오 으로, 창고 안의 삶에 모 자 함.
--



자신의 사 L 과 테 다 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흥 오 를 느낌.

= 사 가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분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가 오 의 모습

TEST 3단계

북어 대가리

1. 제재 개관

갈래	□□, □□□, □□□
성격	□□□, □□□
배경	□□의 어느 □□ 안
주제	현대 사회에서 기계 □□처럼 살아가는 □□□의 모습
특징	- 서로 상반된 □□□을 지닌 인물 간의 □□□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부각함. □□, □□, 북어 대가리 등의 상징적인 □□□과 □□□를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2. 인물의 명명법에 나타난 특징

자양, 기임	□□만으로 이름들 대신함.
운전수	하는 □□로 이름을 대신함.
딸기코, 외눈깔	□□□으로 이름을 대신함.



□□□
□□□이 단절된 □□□□의 모습 □□□을 잃고 □□□□처럼 살아가는 모습

3. 기계와 폭탄의 의미

기계	사람들을 □□□ 함.
----	-------------



폭탄	사람들을 □□□□에 죽임.
----	----------------

= 실제 사회의 □□□□□□을 알지 못함.

4. '북어 대가리'의 의미

몸뚱이를 상실함.	□□□□과 □□□□을 상실함.
머리만 남음.	쓸쓸하고 허무한 □□□□으로 가득참.



□□□□을 잃고 □□□□□□의 □□□□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

5. 자양의 내적 갈등

말은 □□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옳다는 □□□□으로, 창고 안의 삶에 □□□□함.
--



자신의 □□□□과 □□□□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를 느낌.

=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분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의 모습

TEST 4단계

복어 대가리

1. 제재 개관

갈래	____, _____, _____
성격	____, _____
배경	____의 _____ 안
주제	현대 _____에서 기계 _____처럼 살아가는 _____의 모습
특징	• 서로 _____된 _____을 지닌 _____ 간의 _____을 통해 _____을 _____하고 _____를 부각함. • _____, _____, _____ 등의 상징적인 _____과 _____를 통해 _____를 _____으로 표현함.

2. 인물의 명명법에 나타난 특징

자양, 기임	_____만으로 _____들 _____함.
운전수	하는 _____로 _____을 _____함.
딸기코, 외눈깔	_____으로 _____을 _____함.



• _____이 단절된 _____의 _____ • _____을 잃고 _____처럼 살아가는 _____

3. 기계와 폭탄의 의미

기계	_____들을 _____함.
----	-----------------



폭탄	_____들을 _____에 죽임.
----	--------------------

= 실제 사회의 _____을 _____ 못함.

4. '복어 대가리'의 의미

몸뚱이를 상실함.	_____과 _____을 상실함.
머리만 남음.	_____하고 _____한 _____으로 _____참.



_____을 잃고 _____의 _____을 겪는 _____의 모습

5. 자양의 내적 갈등

말은 _____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옳다는 _____으로, 창고 안의 _____에 _____함.



자신의 _____과 _____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_____를 느낌.
--

= _____에 대한 _____이 _____한 채 _____된 사회를 살아가는 _____의 모습

고2 문학 신사고

2024 고2 문학 신사고 | 1(2)(3) 복어 대가리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링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링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링(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

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썹에게 주면, 외눈썹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뉘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링: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링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링: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랑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다링,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다링: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링: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기임: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

다링: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지문

북어 대가리

이 작품은 ‘자양’과 ‘기임’이라는 두 창고지기를 통해 획일화되고 기계적으로 분업화된 현대 산업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두 인물은 창고에서 매일 상자를 쌓아 올리고 트럭에 실어 보내며, 커다란 구조 속의 부속품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은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현대인의 단면을 떠올리게 된다.

자양은 창고지기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인물이다. 이에 비해 기임은 상자들을 관리하는 일은 대충 처리하고 당장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다. 창고지기 생활에 염증을 느낀 기임은 배달할 상자를 고의로 바꾸어 버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큰일이 생길 거라는 자양의 걱정과 달리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양을 남겨 두고 기임이 다림과 함께 창고를 떠나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던 자양의 신념이 흔들린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자양은 결국 그동안 해 온 것처럼 기계적으로 상자를 쌓는 일을 되풀이한다.

작가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의혹을 품게 되는 자양의 인식을 ‘북어 대가리’를 통해 드러낸다. 몸뚱이는 없고 머리만 남은 북어 대가리는 생각만 가득한 무기력한 인간을 상징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상품화되고 파편화된 현대 산업 사회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독특한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창고라는 제한된 공간, 짐을 쌓고 내리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 익명성을 강조한 등장인물의 명칭 등을 통해서도 폐쇄적인 현대인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나무아카데미